

“트럼프 특사-이란 외무장관, 6일 회담” 충돌-협상 갈림길

양국 간 핵무기 논의 가능성 등
위협속 합의점 찾을지 주목

美, 이란에 군사작전 압박
국방장관 “만반의 준비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규모 군사력을 이란 인근에 배치하며 중동에 전운이 엄습하는 가운데 미국과 이란 간의 고위급 회담이 오는 6일(현지시간) 열린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 인터넷매체 약시오스는 2일 스티브 워코프 트럼프 대통령 특사와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6일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만나 양국 간 핵 합의 가능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2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다만, 또 다른 소식통은 6일 회담이 “최상의 시나리오”라면서도 실제 회담이 열리기 전까지는 확정된 것이 없다고 경고했다.

이번 회동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그간 이란 핵무기 개발을 두고 지속돼 온 협상 결렬과 지난해 6월 미군의 이란 핵시설 기습 타격으로 마무리된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12일 전쟁’ 이후 첫 고위급 회담이 된다.

전 세계의 시선은 이번 회담이 중동 지역에서 고조되는 긴장을 해소할 계기가 될 수 있을지에 쏠려 있다. 하지만, 양측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이란에 군사 공격



1일 미국과 이란 간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시위대가 이란 국민을 지지하는 집회에서 미국과 이스라엘 국기를 불태우고 있다.

연남

을 위협하며 이란의 핵무기 개발뿐 아니라 미사일 프로그램, 중동 지역 친(親) 이란 대리 세력 문제까지 한꺼번에 다루는 포괄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압박해왔다.

이에 반해 이란은 핵 개발 문제만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아라그치 장관은 지난달 30일 하칸 피단 튀르키예 외무장관과 이스탄불에서 회담한 뒤 “이란의 국방력과 미사일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번 회담은 튀르키예와 이집트, 카타르 등 중동 지역 국가들의 최근 외교 중재

노력의 결과라고 약시오스는 짚었다.

약시오스에 따르면 이날 튀르키예 피단 장관이 아라그치 장관과 다시 통화해 회담 가능성을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지난 1일 기자들과 만나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이란과 합의에 이르기 기대한다”고 말하면서 우선 대화를 하는 것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이란 와중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대(對) 이란 군사작전 가능성을 재차 거론하며 이란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전쟁부) 장

관은 이날 플로리다 출장 도중 취재진과 만나 “이란은 핵무기 능력을 보유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그들이 그 문제를 협상하거나, 우리가 다른 옵션(군사작전)을 가질 수 있다. 그게 전쟁부의 존재 이유”라고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또 군사작전 가능성을 묻는 말에 “대통령도 그 길을 원하지 않으며 나도 원하지 않지만, 우리 임무는 준비하는 것이다. 그리고 물론 우리는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며 “우리는 지켜볼 것이다. 이제 이란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안전자산’ 금, 비트코인 변동성보다 컸다

비트코인 3.7조원 청산
“위험 심리에 민감해져”

지난달 30일 급락세를 보인 금이 비트코인보다 큰 변동성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블룸버그 통신은 2일(현지시간) “금이 가상화폐보다 변동성이 더 컸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자사가 집계하는 ‘30일 변동성’ 지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금 변동성 수치가 44%로 치솟아 같은 날 39%인 가상화폐 변동성 수치를 웃돌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금 변동성 수치는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금은 가상화폐보다 훨씬 안정적인 자산으로 인식됐지만 이례적으로 변동성이 역전된 것이다.

17년 전 비트코인이 탄생한 이후 지금까지 이러한 변동성 역전 사례는 단 두 차례뿐이었다. 가장 최근 사례는 지난해 5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위협으로 촉발된 무역 긴장 재부상 국면에 있었다.

한편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최근 며칠 동안 모두 25억6000만달러(약 3조

7000억원) 규모의 포지션을 청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가상화폐 시장 데이터 제공업체 코인클래스를 인용해 보도했다.

다만 지난해 10월 10일 발생한 사상 최대 규모인 190억달러(약 28조원)의 가상화폐 청산에는 크게 못 미친다.

애널리스트들은 이번 연쇄 청산 사태가 가상화폐 시장이 위험회피 심리에 얼마나 민감해졌는지를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가상화폐 시장 데이터 제공업체 카이코의 애덤 매카시 수석 애널리스트는 “지난 몇 달간 우리가 본 흐름은 투자자들이 자신의 리스크 관리를 재평가하고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일지를 생각하기 위해 한발 물러선 모습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달 31일 6% 이상 급락한 이후 최근 약 7만800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지난주 연이은 악재가 투자심리를 위축시켰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난달 28일 장 마감 후 시장 예상을 웃도는 분기 매출 실적을 내놨지만 자본지출에 대한 우려로 다음 날 주가가 10% 급락했다.

연합뉴스

컨설팅 · 설치 · 인허가 · 리파워링 · 유지보수

빛이 수익이 되는 순간!
태양광 에너지로 만드는 지속가능한 내일!

(주)TH홀딩스

☎ 대표번호 : 062-953-8311 / 010-4572-7164

